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국립대 사범계열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2018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

지 승 연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국립대 사범계열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박 종 운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

지 승 연

지승연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2월 23일

위원장 교육학박사 강 버 들 (인)

위 원 교육학박사 원 효 헌 (인)

위 원 공 학 박 사 박 종 운 (인)

목 차

Abstract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3

3. 용어의 정리 ····· 4

II. 이론적 배경 ····· 5

1. 전공선택동기 ····· 5

2. 진로성숙도 ····· 12

Ⅲ. 연구방법 ····· 17

1. 연구대상 ····· 17

2. 측정도구 ····· 17

3. 자료분석 ····· 20

IV. 연구결과 및 논의 ····· 21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 21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동기 차이 ····· 25

3.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 29

4.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35

Ⅴ. 결론 및 제언 ····· 42
1. 결론 ····· 42
2. 제언 ····· 45

참고문헌 ····· 46

부록: 설문지 ····· 51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표 목 차

<표 Ⅲ-1> 전공선택동기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 18
<표 Ⅲ-2> 진로성숙도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 19
<표 Ⅳ-1> 연구대상의 개인적 특성 ····· 22
<표 Ⅳ-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 23
<표 Ⅳ-3> 전공선택동기와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 ····· 24
<표 Ⅳ-4> 성별에 따른 전공선택동기 ····· 25
<표 Ⅳ-5> 학년에 따른 전공선택동기 ····· 26
<표 Ⅳ-6> 계열에 따른 전공선택동기 ····· 27
<표 Ⅳ-7>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 ····· 29
<표 Ⅳ-8>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 ····· 31
<표 Ⅳ-9> 계열에 따른 진로성숙도 ····· 32
<표 Ⅳ-10> 전공선택동기가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 35
<표 Ⅳ-11> 전공선택동기가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 37
<표 Ⅳ-12> 전공선택동기가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 38
<표 Ⅳ-13> 전공선택동기가 성향에 미치는 영향 ····· 39
<표 Ⅳ-14> 전공선택동기가 타협성에 미치는 영향 ····· 41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Career Maturity of Students in Educational Department of National University

Seung Yeon Ji

Fisheries & Marine Human Resource Development
Graduate School, Pukyu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re are many leading studies about career of university student, such as major selection motivati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determination types. Bu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majors and career maturity of students, who are subject to study of students, including the college of education - Engineering and Fishe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the career maturity of prospective teachers. It is also aimed at helping students develop programs for career advancement.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 First, what is the difference in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Second, what is the difference in major selection motivation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ird, what is the effect of majors' selection motivation on career maturit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round 35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several universities. Measurement tool is major selection motivation measuring instrument and career maturity measuring instru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First, gender and grade do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major selection motivation. However,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otivation for selecting majors depending on the series.

Second, gender and grade do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maturity attitude. However, Scheffe's test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Third, the motivation to select majors of students in colleg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maturity. Intrinsic motiva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decisiveness, involvement, orientation, and compromise. Intrinsic motiv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independence. External motiv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participation. External motiva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independence, and no effect on decisiveness and involvemen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s follows :

First, because this study was aimed at various students in the general education class, it is not possible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s general students in the nationwi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research by expanding the subjects to be sampled in the future to more diverse student groups.

Second, this study was composed of the questionnaire focusing on determinants, participation, independence, inclination, and compromise among the career maturity scale. The questionnaire was focused on determinism, independence, conviction, objectivity, You must configure and proceed.

Finall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areer path of students at the college with only two factors: motivation for selection and career maturity. In the future, however,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self-esteem, career exploration efficacy, the factors should be diversified and research should be done actively.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진로란 개인이 자신의 일생에서 행하는 모든 종류의 직업, 일 등을 포함하는 말이다. 이것은 개인의 생애를 통한 직업발달과 그 과정 및 내용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과거에는 한 직업 및 한 회사에 평생 종사하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그래서 진로를 직업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사회·경제적 환경과 직업세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직무 내용이나 기능도 다양해짐에 따라 진로와 직업의 개념을 구별하게 되었다. 즉, 진로란 직업을 포함하여 개인이 일생 동안 하는 일 전체를 포괄한다. 또한 진로는 한 개인이 자신이 목표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의 길이다.

2017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2015년에 비하여 0.9% 하락했지만 전체의 69.8%가 대학에 진학하였다. 졸업생의 약 70%가 대학 진학을 할 때 전공을 선택하는 갈림길에 서게된다. 물론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계고등학교학생들은 대학 진학할 때 학생들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약 31.7%가 자신의 전공과 직업일치가 관련이 없다고 보고되었다. 대다수의 고등학생은 전공을 선택할 때 자신의 성적에 맞추거나 학과의 취업 전망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다. 그래서 대학교의 전공이 자신의 진로와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범대는 교직 이수가 필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은 교사라는 진로를 고려하여 사범계열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다. 사범대학은 고등교육법 제41조에 의하면 '중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를 둘 수 있다.'라고 정의한다. 사범계열 대학생은 중등학교 교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종합 대학 내에 설립된 단과 대학인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교육대학교 및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사범계열 학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등교육은 제2단계 교육이라고도 불리어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이 이에 해당한다. 2016년 학과분류 자료집에서 중등교육은 초등교육의 일반성, 보편성, 기초성 등의 특성과는 달리 진학을 위한 준비교육 혹은 전문지식·기술의 습득 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등학교 교사는 자신의 전공과목에 대한 전공지식뿐만 아니라 진로교육에 대한 지식과 효과적인 교수법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중등교육 교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에서도 바로 이 점에 중점을 두고 교육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사범대학 학생들은 이처럼 향후 중등교사가 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진학하였기 때문에 사범계열 대학생들이 전공선택동기가 확실하고 진로성숙도가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오소제(2010)는 사범대학생들은 1학년부터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하며, 사범대학생들에게 진로지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조애리(2012)는 대부분의 사범대학 학생들은 진로정체감 발달 단계에서 진로정체감이 확실히 형성되기 전에 진로가 결정되어 조기 완료의 상태를 보인다고 하였다.

사범대학은 타 단과대학보다 진로의 폭이 좁고 한정되어있지만, 사범계열 대학생의 대부분은 교사가 되고 싶기 때문에 사범대학에 진학을 한다.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유형 등 진로에 관한 선행

연구가 많이 존재하지만 공학계열, 수산계열을 포함하는 사범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공선택동기와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를 통해 사범계열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사범계열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와 진로준비 등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도움을 주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사범계열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동기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개념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공선택동기

전공선택동기란 개인이 진로를 위하여 전공을 선택할 때 영향을 받게 되는 동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선택동기를 적성, 흥미, 소질 등의 개인적 요인을 뜻하는 내재적 동기, 취업전망, 인기학과, 주변의 시선 등의 사회적 요인을 뜻하는 외재적 동기로 구분하였다.

나.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란 개인의 발달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사전준비를 하며 그 정보를 기초로 하여 진로를 결정하고 계획적으로 진로를 준비해 나갈 때, 동일한 연령층이나 집단에서의 개인이 상대적 위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으로 구분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전공선택동기

가. 전공 선택의 개념

류지영(1992)은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중의 하나이며, 사회에 진출하기 전 자신의 능력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공은 고등교육 조직과 학사운영의 중요한 기본단위로서 전문화된 지식 분야 속에서 수업과 연구가 직접 이루어지는 장이며, 비교적 자율적인 학자집단으로 구성된 조직체라고 할 수 있으며, 학과조직풍토는 학과조직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 전반에 발생하고 각 구성원에 의해 지각되며, 다른 학과 조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사회·심리적인 환경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경희 외(1996)는 전공선택은 현재의 교육적, 사회적 상황에서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를 결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항로에서 처음으로 부딪히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며,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는 경력에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는 한 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임언(2006)은 전공 선택의 개념을 전공 선택 과정에 대해서 그 전공의 전망에 대한 인식, 특정한 학교의 특정 학과가 갖는 사회적 위상 또는 학교 내에서의 인지도 등과 함께 재학 중의 교육과정과 졸업 후 진출 분야가

개인의 특성과 잘 부합하는가를 파악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이건남 외(2009)는 흥미나 가치관, 성격, 능력 및 기술 등의 자기이해, 진로목표, 가정적 환경, 사회적 환경,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대학전공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선택 가능한 전공을 고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자신의 능력과 적성,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에 알맞은 전공을 선택하는 일은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대학 및 전공 선택의 첫 시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며 대학 진학이 나의 삶의 목표와 부합되는지, 나 자신은 대학 교육을 받을 준비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떤 전공이 적성에 적합한지, 대학 졸업 후 어떠한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대학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결정하였는지, 대학에 진학할 만큼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는지, 대학 졸업 후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등의 질문에 대하여 냉정히 생각해보고 자기 스스로 대학 진학을 위한 목표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최선미, 2007).

실제로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개인에게 잠재되어 있는 적성과 자질을 탐색하고 전문성을 발달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에서 어떠한 전공을 선택하여 수학하느냐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대학생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해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의미 있는 타인 등에 의한 전공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목적의식의 부재와 부적응으로 상당수의 사범대학생이 입학 후에 휴학, 편입, 재입학을 통해 자신의 전공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갈등 등은 시간적·경제적·정신적인 면에서 많은 에너지 손실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졸업 후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갖거나, 전공을 찾는다고 해도 직업과 업무환경에 적응이 어려워 잦은 이직을 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김수영, 2007).

Logue(2005)는 전공 선택의 과제는 개인의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직업선택과 장래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정보연(2010)은 대학생활 자체가 전공 영역별로 되어 있고, 전공은 대체로 장래의 진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위의 개념들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전공 선택은 개인의 적성, 흥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를 위하여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갖출 수 있게, 전공을 고르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 전공 선택 동기의 개념 및 구성요인

전공 선택 동기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동기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Gage& Berliner(1984)는 동기란 대체로 행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행동의 방향을 정해 주는 것이며, 김수영(2007)은 동기란 용어는 라틴어로 '움직이다'라는 의미를 지닌 'movere'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동기란 인간에게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근원이라고 하였다.

이용남(1999)은 동기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동기의 기능을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시작하도록 이끌고, 특정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며, 목표의 도달을 위해 꾸준히 나아가도록 하는 것으로 물리학에서 벡터의 삼요소인 크기, 방향, 작용점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Steers & Porter(1991)는 학자들 간 동기에 관한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인간의 행동을 작동시키고, 그러한 행동을 일정 방향으로 이끌며, 어떻게 유지되고 계속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또한 동기라는 개념은 호기심, 흥미, 욕구, 가치, 태도, 열망, 등과 함께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동기는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될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동기유발의 원천을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관점이라고 하였다.

동기는 우선 일차적 동기와 이차적 동기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일차적 동기는 생득적 성향으로 학습되지 않는 신체적·생리적 평형 상태 유지, 유기체의 생명 보존, 종족 보존에 필요한 동기를 말하는 것으로 갈증, 수면, 휴식, 반사 활동, 배설, 성욕 등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이차적 동기는 후천적인 학습 및 경험에 의한 사회적 동기로 상벌, 경쟁, 우월, 독립, 소속감, 사회적 인정 등을 의미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인간 행동의 동기화 과정에는 일차적 동기보다 환경적·상황 요인에 따라 학습한 동기, 특히 대인 관계 속에서 학습되는 사회적 동기인 이차적 동기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차적 동기에는 대표적으로 성취 욕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금전이나 명성 등의 보상 때문이 아닌, 그 일 자체에 즐거움과 의미를 부여하여 그 일을 성취하게 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즉, 성취 자체를 위해 특정 영역에서 뛰어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성취동기가 높다고 보는 것이다(김영봉 외, 2007).

임용수(1993)는 성별, 학업성적, 적성, 지능, 재능과 같은 개인적 요인 외에도 부모나 교사의 영향, 사회계층배경, 교육제도, 산업구조 등 외부적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로 이해하였다. 이와 같은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때문에 선택한 전공은 향후 전공 만족도와 연결되기도 하며, 그들의 진로의식의 형성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인간이 결정하는 대부분 선택과정은 외부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대상에 대한 지식과 자신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심리적 상태에 대한 지식을 비교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도 예외는 아니며,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도 동기의 작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공 선택 동기는 전공을 고르는 행위의 원인이 흥미와 적성, 전공을 통한 자기 계발 가능성 등 행동에 대한 통제 위치가 내재적이었는지, 아니면 전공의 인기나 취업전망 등의 외재적이었는지를 의미한다. 대학에서의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내재적 동기에 의한 것인지 혹은 외재적 동기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이경희 외, 1996).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상학(1998)은 사회복지 전공선택동기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의 가치관, 사회복지실천을 통한 사회기여 욕구, 개인적인 경험 및 가정환경, 개인의 성격, 종교적인 영향 등이 전공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최상권(2012)은 경호학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에 관해 개인 성격, 이타주의, 사회기여, 개인적 경험 및 환경, 학문의 전문성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개인 성격은 개인의 행동 경향성 혹은 행동을 일관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정신적 구조체를 말한다. 둘째, 이타주의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이 잘되도록 도와주거나 남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는 태도나 경향이다. 셋째, 사회 기여는 사회진출 이후 전공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일체의 행위라 정의한다. 넷째, 개인의 경험 및 환경은 다양한 상황들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횡적인 측면의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섯째, 학문적 전문성은 전문 개념이나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거나 그 분야의 전공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연(2010)은 전공선택동기와 직업선택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전공선택동기의 하위요인으로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다. 개인적 동기 요인에는 적성과 흥미, 미래에 하고 싶은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의 내용이 포함되고, 사회적 동기 요인에는 인기 있는 전공 고려, 취업 전망, 어렵지 않은 전공공부, 주변 권유를 두고 있다.

(1) 내재적 동기

동기 유발의 원천을 내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내재적 동기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때 형성된다. Eggen& Kauchak(1992)는 학생들의 성취동기, 자아실현의 욕구 등은 내재적 동기이며, 이를 통하여 내재적 보상을 받는다. 내재적 보상이란 학습활동에 대하여 성공감이나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활동에서의 성취감으로 인해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Deci(1980)는 행동이 지향하는 목표와 상관없이 행동 자체에 결합한 가치나 즐거움에 따라 어떤 과제를 수행하려 할 때 발생하는 동기를 내적 동기로 보았으며, 또한 내적으로 동기화된 행동들은 그 행동이 수반되는 자발적인 경험에 대한 기쁨과 관심 이상의 그 어떤 보상도 필요치 않으며, 기쁨과 관심 때문에 수행되는 자기 결정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Kruglanski(1975)는 내적 동기이론에 따르면 행동에 대한 통제 위치가 내부적이라고 지각하거나, 행동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일 경우 내적 동기가 증가한다고 제안하였다.

내재적 동기 요인으로 전공에 대한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소질 등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수산계열 사범대학생이 자신의 전공 선택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준 동기가 내재적인 이유였다면, 그 학생은 전공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수산에 관련된 내용을 배울 때, 외재적 동기에 의해 전공을 선택한 학생보다 전공공부에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학생은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학업성취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외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란 학습자가 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화물로서의 동기를 의미한다. 이때의 보상을 외재적 보상이라고 하며, 행동주의의 관점에 근거한 외재적 보상은 높은 성적, 상장, 용돈 등과 같이 직관적으로 쉽게 이용될 수 있다. 내재적 동기는 학습자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기로서, 학습자의 흥미나 호기심과 같은 요인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자신의 욕구에 대한 반응을 의미한다.

Deci(1980)는 행동이 지향하는 외재적 목표 즉 성적, 보상, 진급 등에 의해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동기를 외적 동기로 보았다. 외적으로 동기화된 행동들은 행동 때문에 저절로 생기는 외부의 보상이나 결과들을 위해 수행되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재적 동기 요인에는 일생동안 자신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던 부모님, 친척, 선생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또한 그 전공의 미래 전망, 성적, 학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구 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공선택동기의 구성요인으로 적성, 흥미, 소질 등의 개인적 요인을 뜻하는 내재적 동기, 취업전망, 인기학과, 주변의 시선 등의 사회적 요인을 뜻하는 외재적 동기로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선택동기를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기의 위치가 '내재적이었는가' 혹은 '외재적이었는가'로 구분하여, 두 하위요인이 사범계열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2. 진로성숙도

가. 진로성숙도의 개념

Ginzberg(1951)는 대학생은 진로발달단계에서 현실적 직업선택 단계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 시기에 드디어 현실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며,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기회뿐만 아니라 직업의 요구조건, 교육기회, 개인 요인 등과 같은 현실적 요인들을 고려하게 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직업선택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이나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며, 현실적인 개인의 문제나 정서적인 불안정 등을 극복하고, 자신의 직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대학생들은 결국 이 단계를 거치면서 진로성숙을 이루어나간다고 하였다.

Super(1951)는 진로성숙이란 주어진 발달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의 정도, 즉 탐색기에서 쇠퇴기에 이르는 직업발달의 연속 선상에서 개인이 도달한 위치라고 정의하였으며, 직업에서의 정신연령으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진로선택에 대한 태도,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계획성,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의 일관성, 자기 특성에 대한 구체적 이해, 진로문제에서 지혜라는 다섯 가지 구성개념에 대해서 개인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를 진로성숙으로 정의하였다.

Hoyt(1977)는 자아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준비도로 진로성숙을 정의하였다.

Crites(1978)는 Super(1951)의 이론에 근거해 진로성숙을 자신의 연령 수준에서 주어진 진로 관련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도로 개념화하였는데, 이는 같은 연령 대학생들 간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준비

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Heller(2008)는 진로성숙의 개념 정의와 구인에 대한 여러 연구를 통해 볼 때,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선택의 일관성, 직업선택의 능력, 직업선택의 태도 등의 요인들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진로성숙에 관한 국내연구에서는 김충기(1983)가 개인이 직업적 소양, 가치,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직업적성에 부합되는 행동과 판단력을 배양하여 직업적 성숙의 결과를 낳는 과정을 진로성숙이라고 하였다. 신승원(2011)은 진로성숙이란 인간이 자신과 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에 기초해 현명하게 진로를 준비하고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숙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원상희(2013)는 진로선택이나 진로계획의 준비된 정도를 의미하며 청소년 각 개인의 진로발달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진로발달이론가들에 의해 '진로의식성숙' 또는 '진로태도성숙', '진로성숙도' 등의 명칭과 함께 다양하게 정의됐다고 하였다. 정주원(2014)은 진로성숙이란 개인적 측면만이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1992)에서는 진로성숙의 개념을 연속적인 발달 개념으로 보았으며, 부분적으로는 각 발달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의 수행 정도를 같은 연령와 비교하여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로 보고 있다. 결국 진로성숙이란 특정 개인이 자아와 일의 세계를 기초로 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인식하고 선택하며, 계획하는 과정에서 같은 연령층이나 발달 단계에 있는 집단의 과업 수행과 비교해 볼 때 그 개인이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위치로 정의하고 있다. HRD 용어사전에서는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생애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진로발달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도를 의미하며, 개인이 자신의 진로설계와 직업선택을 위해 자기이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같은 진로발달 과업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즉 진로성숙도란 개인의 발달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사전준비를 하며 그 정보를 기초로 하여 진로를 결정하고 계획적으로 진로를 준비해 나갈 때, 동일한 연령층이나 집단에서의 개인이 상대적 위치라고 할 수 있다.

나. 진로성숙도의 구성요인

김봉환(1997), 이진희(2009)의 연구에서 진로성숙을 구성요인을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의 다섯 가지 구인으로 설명하였으며 각 차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정성이란 자신이 선호하는 진로방향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진로와 직업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가를 의미한다. 둘째, 참여도란 준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이해, 준비 및 계획정도 그리고 진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진로선택에 필요한 진로정보수집과 진로의사결정능력의 수준을 나타낸다. 셋째, 독립성은 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자신이 주체적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가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넷째, 성향이란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이해와 준비의 정도이다. 자신의 진로선택이나 진로결정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의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다섯째, 타협성이란 자신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아보는 차원으로 자신의 욕구와 현실에 타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다.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연구 중 개인내적변인들과 가족변인, 집단 간의 비교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개인내적변인은 자아효능감, 낙관성, 역기능적 사고, 내외 통제성 등이 주요한 예측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학년과 성별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대립된다.

진로성숙도를 개발한 Crites(1978)의 CMI(Career Maturity Inventory)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숙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이성진(1984)과 이현림·권소희(2000)의 연구가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송현순(1997)은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개인의 특성에 따른 변인으로 지능이나 성, 자아, 학업성취도 등을 보고하였고, 유준상·서우석(2013)은 진로성숙과 가장 관련 높은 심리적 변인으로 자아정체감을 보고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이기학 외(1997)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정종화(2002)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다는 연구결과 그리고 뚜렷한 성차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환경적 변인들에 따른 진로성숙의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는, 김현옥(1989)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하위변인의 일부가 부정되기는 했으나 진로성숙에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서우석(1994)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요인 중의 하나인 가장의 교육수준별 의사결정 성숙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의 교육수준에 따라 의사결정 유형이나 진로의사결정 성숙도 점수에 대부분 차이가 있었고, 학교 소재지별 진

로의사결정 하위변인들도 대부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인규(1998)도 도시와 농촌 간 지역에 따른 진로성숙을 조사한 결과, 진로교육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시 지역 학생들이 면 지역 학생들보다 높은 성숙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심리적 변인들에 따른 진로성숙의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김현옥(1989)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성숙과 심리적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개념의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성격적 자아라고 하였다. 또한 서우석(1994)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개념과 의사결정 성숙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진로의사결정 성숙도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위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첫째, 개인 특성과 관련된 변인, 즉 성별, 나이, 지능, 학업성취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환경적 변인의 측면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거주 지역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셋째, 진로성숙과 심리적 변인에 대한 연구는 자아개념, 내외통제성의 정도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즉, 세 가지 측면에서 알아본 이상의 결과는 대부분의 연구가 개인특성 변인, 환경적 변인, 심리적 변인에서 비슷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진로성숙도의 5가지 구성요인에 전공선택동기가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몇몇 국립대학교 사범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학과 조교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총 350부의 설문지를 택배 및 방문을 통하여 270부를 수거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와 무응답 설문지 약 38부를 제외하고, 총 232부의 설문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 도구

가.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총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알아보는 7문항, 전공선택동기 14문항, 진로성숙도 4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7문항은 성별, 학년, 계열, 교생실습, 멘토링경험, 직업, 임용고시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전공선택동기와 진로성숙도의 문항은 리커트 유형(Likert-type) 5단계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상승되도록 배치하였다.

나. 전공선택동기 척도

본 연구에서는 전공선택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송윤정(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본 연구자가 중복되는 의미의 단어, 문맥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정된 문항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Kaiser-Meyer-Olkin 측도가 0.858로 수정된 문항이 타당하다고 나타났다. 전공선택동기 설문지는 내재적 동기 8문항, 외재적 문항 5문항으로 2개의 하위요인이 있으며 1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하인 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아래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전공선택동기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 항	문항수	Cronbach's α	
			선행연구	본연구
내재적동기	1, 2 ,3, 4, 5, 6, 7, 8	8	.93	.945
외재적동기	9, 10, 11, 12, 13	5	.83	.786
전체		13	.87	.881

다. 진로성숙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진희(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본 연구자가 중복되는 의미의 단어, 문맥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정된 문항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Kaiser-Meyer-Olkin 측도가 0.765로 수정된 문항이 타당하다고 나타났다. 진로성숙도 설문지는 결정성 10문항, 참여도 10문항, 독립성 10문항, 성향 10문항, 타협성 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5개의 하위요인이 있으며 4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하인 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아래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진로성숙도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 항	문항수	Cronbach's α	
			선행연구	본연구
결정성	1, 2 ,3, 4, 5, 6, 7, 8, 9, 10	10	.69	.78
참여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	.71	.81
독립성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	.75	.82
성향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10	.85	.92
타협성	41, 42, 43, 44, 45, 46, 47	7	.64	.61
전체		47	.89	.853

3.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개인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해 Kaiser-Meyer-Olkin 척도의 계수와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의 전공선택동기, 진로성숙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Mean) 및 표준편차(Standard dewiation)를 산출하였다.

넷째, 전공선택동기, 진로성숙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Pearson's correlation)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성별, 학년과 계열에 따라 전공선택동기 및 진로성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에 대해서는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가. 연구 대상의 개인적 특성

성별은 남성은 122명(52.6%), 여성은 110(47.4%)이며, 학년은 1학년이 48명(18.5%), 2학년이 82명(25.3%), 3학년이 74명(31.9%), 4학년이 33명(14.2%)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은 88명(37.9%), 공학계열은 92명(39.7%), 수산계열은 52명(22.4%)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4학년 학생들은 교생실습을 다녀왔다. 72.4%의 학생들이 교육 봉사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82.3%의 학생들이 교사, 3%의 학생들은 교육 관련 회사원, 5.2%의 학생들은 교육 관련 기관 연구원, 2.2%로의 학생들은 전공과 무관한 직업, 기타를 택한 3.4%의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직업', '해사심판원', '잘 모르겠다'를 선택하였다. 87.1%의 학생들은 '임용고시를 응시하고 싶다', 6.0%의 학생들은 '임용고시를 응시하고 싶지 않다', 6.9%의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연구대상의 개인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22	52.6
	여	110	47.4
학년	1학년	48	18.5
	2학년	82	35.3
	3학년	74	31.9
	4학년	33	14.2
전공	인문계열	88	37.9
	공학계열	92	39.7
	수산계열	52	22.4
교생실습	예	29	12.5
	아니오	203	87.5
교육봉사활동	예	168	72.4
	아니오	64	27.6
장래 희망	교사	191	82.3
	교육관련 회사원	7	3
	교육관련 기관 연구원	12	5.2
	전공과 무관한 직업	9	3.9
	기타	5	2.2
	복수응답	8	3.4
임용고시 응시	응시	202	87.1
	불응시	14	6.0
	잘모름	16	6.9
전체		232	100

나.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주요 변수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Mean) 및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산출하였다. 아래 <표 Ⅳ-2>에 산출 결과를 제시하였다. 모든 변수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평균 산출 결과 전공선택동기에서는 내재적 동기가 3.63, 동기가 3.33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에서는 결정성이 3.11, 참여도가 2.39, 독립성이 3.82, 성향이 2.34, 타협성이 3.02로 나타났다.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를 알아본 결과, 왜도는 2 미만, 첨도는 4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변수	구분	M	SD	왜도	첨도
전공선택동기	내재적동기	3.63	0.94	-0.54	-0.19
	외재적동기	3.33	0.78	-0.34	0.07
	전체	3.51	0.70	-0.48	0.05
진로성숙도	결정성	3.11	0.56	0.32	0.11
	참여도	2.39	0.64	0.67	0.86
	독립성	3.82	0.58	0.15	-0.66
	목적성	2.34	0.81	0.36	-0.38
	확신성	3.02	0.51	-0.04	-0.22
	전체	2.93	0.36	0.56	0.75

다. 전공선택동기와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

학과만족도와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의 적률상 계수를 구한 결과는 아래의 <표 Ⅳ-3>과 같다.

<표 Ⅳ-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내재적 동기는 진로성숙도의 결정성, 독립성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결정성, 성향, 타협성과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내재적 동기는 참여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외재적 동기는 진로성숙도의 참여도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독립성과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Ⅳ-3> 전공선택동기와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내재적 동기	1						
2. 외재적 동기	.183**	1					
3. 결정성	-.259**	.057	1				
4. 참여도	-.100	.205**	.419**	1			
5. 독립성	.136*	-.263**	-.199**	-.348**	1		
6. 성향	-.204**	.085	.548**	.366**	-.467**	1	
7. 타협성	-.283**	-.015	.603**	.327**	-.301**	-.301**	1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동기 차이

가. 성별에 따른 전공선택동기 차이

성별에 따른 사범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Ⅳ-4>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그리고 전체 평균적으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Ⅳ-4> 성별에 따른 전공선택동기

하위요인	성별	N	M	SD	t	p
내재적동기	남	122	3.72	0.91	1.708	.276
	여	110	3.51	0.96		
외재적동기	남	122	3.48	0.75	3.222	.947
	여	110	3.16	0.77		
전체	남	122	3.63	0.67	2.806	.511
	여	110	3.38	0.70		

본 연구의 결과는 성별에 따른 전공선택동기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던 김현아(2016), 서병우(2013)와 종합교원양성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던 윤창환(201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나. 학년에 따른 전공선택동기 차이

학년에 따른 사범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Ⅳ-5>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내재적 동기는 1학년이, 외재적 동기는 4학년이, 전체적으로는 1학년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Ⅳ-5> 학년에 따른 전공선택동기

하위요인	학년	N	M	SD	F	p
내재적동기	1학년	43	3.84	0.79	0.939	.422
	2학년	82	3.59	0.92		
	3학년	74	3.55	1.05		
	4학년	33	3.61	0.88		
외재적동기	1학년	43	3.22	0.94	2.155	.094
	2학년	82	3.43	0.71		
	3학년	74	3.19	0.72		
	4학년	33	3.52	0.84		
전체	1학년	43	3.60	0.57	0.087	0.252
	2학년	82	3.53	0.68		
	3학년	74	3.41	0.75		
	4학년	33	3.58	0.76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던 오지혜(2017)의 연구와, 종합교원양성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던 윤창환(2016)의 연구에서도 학년에 따른 전공선택동기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다. 계열에 따른 전공선택동기 차이

계열에 따른 사범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 배치 분산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Ⅳ-6>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Ⅳ-6>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계열에 따른 사범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보게 되면 내재적 동기의 경우는 $p<0.05$수준에서 계열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외재적 동기의 경우는 $p<0.001$수준에서 계열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Ⅳ-6> 계열에 따른 전공선택동기

하위요인	학년	N	M	SD	F	p	Scheffe
내재적동기	인문(a)	88	3.86	0.94	5.447	.005	b.c<a
	공학(b)	92	3.55	0.91			
	수산(c)	52	3.36	0.90			
외재적동기	인문(a)	88	2.96	0.76	18.702	.000	b.c>a
	공학(b)	92	3.60	0.77			
	수산(c)	52	3.48	0.59			
전체	인문(a)	88	3.52	0.63	0.845	.431	·
	공학(b)	92	3.57	0.75			
	수산(c)	52	3.41	0.70			

종합교원양성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던 윤창환(2016)의 연구에서는 전공에 따른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에서 예체능계열이 인문사회계열이나 자연계열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던 오지혜(2017)의 연구에서는 전공에 따른 전공선택동기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수산계열, 인문계열, 공학계열 사범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검증을 한 결과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는 인문계열 사범대학생들이 수산계열과 공학계열 사범대학생들보다 높고, 외재적 동기는 수산계열과 공학계열 사범대학생이 인문계열 학생들보다 높았다. 이는 인문계열 사범대학생들이 적성이나 흥미 등의 개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였으며, 공학계열과 수산계열사범대학생들은 전공의 취업전망, 인기학과, 부모님 혹은 주변의 권유, 사회에서의 인정, 보수 등의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된다.

3.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가.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성별에 따른 사범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Ⅳ-7>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 진로성숙도를 보면 Likert 5점 척도에서 남학생들의 평균은 2.92 여학생들의 평균은 2.94로 비슷하지만, 여학생이 조금 높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 나머지 하위요인에서도 남녀의 평균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7>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성별	N	M	SD	t	p
결정성	남	122	3.08	.59	-.963	.529
	여	110	3.15	.53		
참여도	남	122	2.46	.68	1.887	.203
	여	110	2.30	.58		
독립성	남	122	3.80	.56	-.624	.439
	여	110	3.84	.60		
성향	남	122	2.30	.78	-.900	.180
	여	110	2.40	.85		
타협성	남	122	2.97	.49	-1.472	.866
	여	110	3.07	.52		
전체	남	122	2.92	.38	-0.578	.564
	여	110	2.94	.34		

사범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던 오소제(2010), 윤창환(2016)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나.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학년에 따른 사범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 배치 분산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Ⅳ-8>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학년에 따른 사범대학생의 진로성숙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위요인을 보면 독립성과 성향이 1학년이 제일 높다고 $p<0.05$수준에서 학년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Scheffe 사후 검증을 통해 다시 알아보니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사범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던 오소제(2010) 연구에서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던 이유민(2014)의 연구에서도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표 Ⅳ-8>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성별	N	M	SD	F	p	Scheffe
결정성	1학년	43	3.01	0.46	1.394	.245	.436
	2학년	82	3.19	0.54			
	3학년	74	3.12	0.63			
	4학년	33	3.02	0.55			
참여도	1학년	43	2.26	0.56	1.499	.216	.325
	2학년	82	2.49	0.46			
	3학년	74	2.34	0.68			
	4학년	33	2.38	0.65			
독립성	1학년	43	3.97	0.66	3.584	.015	.061
	2학년	82	3.66	0.64			
	3학년	74	3.88	0.58			
	4학년	33	3.88	0.56			
성향	1학년	43	3.97	0.63	3.584	.015	.103
	2학년	82	3.66	0.42			
	3학년	74	3.88	0.58			
	4학년	33	3.89	0.58			
타협성	1학년	43	2.95	0.56	2.335	.075	.314
	2학년	82	3.13	0.63			
	3학년	74	2.95	0.42			
	4학년	33	2.97	0.58			
전체	1학년	43	2.88	0.29	1.888	.132	.372
	2학년	82	3.00	0.35			
	3학년	74	2.89	0.37			
	4학년	33	2.90	0.41			

다. 계열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

계열에 따른 사범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Ⅳ-9>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Ⅳ-9> 계열에 따른 진로성숙도

하위요인	성별	N	M	SD	F	p	Scheffe
결정성	인문(a)	88	3.08	0.56	0.632	.533	·
	공학(b)	92	3.10	0.60			
	수산(c)	52	3.19	0.50			
참여도	인문(a)	88	2.16	0.48	10.462	.000	b.c>a
	공학(b)	92	2.57	0.72			
	수산(c)	52	2.44	0.60			
독립성	인문(a)	88	4.10	0.54	19.741	.000	b.c<a
	공학(b)	92	3.65	0.52			
	수산(c)	52	3.63	0.57			
성향	인문(a)	88	2.37	0.82	3.491	.032	b.c>a or a,b<c
	공학(b)	92	2.56	0.83			
	수산(c)	52	2.34	0.81			
타협성	인문(a)	88	2.94	0.47	1.609	.202	·
	공학(b)	92	3.07	0.52			
	수산(c)	52	3.06	0.53			
전체	인문(a)	88	2.90	0.33	0.870	.420	·
	공학(b)	92	2.94	0.38			
	수산(c)	52	2.97	0.36			

이진희(2009)의 연구에서는 전체 진로성숙도는 인문계열, 각각 결정성 영역에서는 교육계열, 참여도는 인문계열, 독립성은 인문계열, 성향은 의약계열, 타협성은 인문계열이 가장 높은 성숙도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인문계열, 교육계열, 의약계열이 사회계열, 공학계열보다 유의미하게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소제(2010),의 연구에서는 전공계열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수산계열, 인문계열, 공학계열 사범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진로성숙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위요인별로 알아보니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래서 Scheffe 사후 검증 통해 참여도, 독립성, 성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각 연구대상의 전공계열의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진로성숙도 전공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났지 않았지만 하위요인별로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다. 참여도에서는 공학계열과 수산계열 사범대학생들이 인문계열 사범대학생보다 높다고 나타났다. 성향에서는 공학계열과 수산계열 사범대학생들이 인문계열 사범대학생들보다 높을 수도 있고 수산계열 사범대학생들이 공학계열과 인문계열 사범대학생들보다 높을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독립성에서는 인문계열 사범대학생들이 공학계열과 수산계열 사범대학생들보다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는 아래와 같이 분석된다.

첫째, 참여도에서 공학계열과 수산계열 사범대학생들이 인문계열 사범대학생보다 높다고 나타났다. 이는 공학계열과 수산계열 사범대학생들이 인문계열 사범대학생들보다 진로선택 과정에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고 분석된다.

둘째, 독립성에서는 인문계열 사범대학생들이 공학계열과 수산계열 사범대학생들보다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나타났다. 이는 인문계열 사범대학생들

이 공학계열과 수산계열 사범대학생들보다 진로선택을 할 때 진로와 관련해서 자신이 주체적 결정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공학계열과 수산계열 사범대학생들이 전공 관련 다양한 기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을 분석된다.

셋째, 성향에서는 공학계열과 수산계열 사범대학생들이 인문계열 사범대학생들보다 높거나 수산계열 사범대학생들이 공학계열과 인문계열 사범대학생들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공학계열과 수산계열 사범대학생들이 인문계열 사범대학생들보다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를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수산계열 사범대학생들이 공학계열과 인문계열 사범대학생들보다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를 더 열심히 한다고 분석된다.

4.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가. 전공선택동기가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전공선택동기의 2가지 구성요인인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표 Ⅳ-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회귀모형은 유의한 의미의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9.733, p<0.001),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를 약 7%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dj R-spuare =0.070).

회귀계수의 분석 결과, 내재적 동기는 결정성에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 p<0.001). 즉 내재적 동기가 높아질수록 결정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외재적 동기는 결정성에 유의미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 전공선택동기가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결정성	(상수)	3.458	.192		17.987	.000	
	내재적 동기	-.167	.039	-.279	-4.321	.000	1.035
	외재적 동기	.078	.047	.108	1.669	.096	1.035
F : 9.733, R-spuare : 0.078, adj R-spuare : 0.070, Durbin-Watson : 1.927							

윤창환(2016)의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가 결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위의 표에서 보듯이 내재적 동기는 결정성에서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윤창환(2016)의 연구대상이 3, 4학년들만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계열 범주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짐작된다.

내재적동기가 결정성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범계열 대학생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진로방향에 대한 확고한 정도 및 자신이 생각하고 선택하려고 할 때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는 것이 불안정하다고 느낀다고 분석할 수 있다. 반면에 외재적 동기는 윤창환(2016)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도 결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전공선택동기가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전공선택동기의 2가지 구성요인인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표 Ⅳ-1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회귀모형은 유의한 의미의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7.500$, $p<0.001$),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를 약 5.3%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dj R-spuare=0.053).

회귀계수의 분석 결과, 내재적 동기는 참여도에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 $p<0.05$). 즉 내재적 동기가 높아질수록 참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외재적 동기는 참여도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 $p<0.001$). 즉 외재적 동기가 높아질수록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Ⅳ-11> 전공선택동기가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참여도	(상수)	2.108	.220		9.578	.000	
	내재적동기	-.097	.044	-.142	-2.188	.030	1.035
	외재적동기	.189	.053	.231	3.542	.000	1.035

F : 7.500, R-spuare : 0.061, adj R-spuare : 0.053,
Durbin-Watson : 1.578

내재적 동기는 참여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반면에 외재적 동기는 참여도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개인의 적성과 흥미,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을 고려하여 진로선택을 할 때 필요한 사전이해 및 진로정보수집과정에서 조금 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외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인기 있는 전공, 취업 전망, 급여, 주변 권유를 고려하여 진로선택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진로의사결정능력의 수준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된다.

다. 전공선택동기가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전공선택동기의 2가지 구성요인인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표 Ⅳ-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회귀모형은 유의한 의미의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3.308$, $p<0.001$),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를 약 9.6%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dj R-spuare=0.096).

회귀계수의 분석 결과, 내재적 동기는 독립성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 p<0.05). 즉 내재적 동기가 높아질수록 독립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외재적 동기는 독립성에서 유의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 p<0.001). 즉 외재적 동기가 높아질수록 참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Ⅳ-12> 전공선택동기가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독립성	(상수)	4.129	.196		21.103	.000	
	내재적동기	.118	.039	.190	2.992	.003	1.035
	외재적동기	-.221	.047	-.298	-4.679	.000	1.035
F : 13.308, R-spuare : 0.104, adj R-spuare : 0.096, Durbin-Watson : 1.763							

내재적 동기가 독립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반면에 외재적 동기는 독립성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진로선택 및 결정할 때 자신의 의견을 고려하며, 주체적으로 진로선택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재적 동기가 낮을수록 자신의 의견보다는 주변 사람의 의존하며 자신의 진로선택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된다.

독립성 부분에서는 윤창환(2016)과 본 연구는 내재적 동기가 정(+)의 영향, 외재적 동기가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일치하였다. 이는 전공, 학년에 상관없이 사범대학생들은 내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진로선택 및 결정할 때 자신의 의견을 고려하며, 주체적으로 진로선택을 한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사범계열 대학생들은 전공을 선택할 때 취업 전망, 보수, 주변인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선택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된다.

라. 전공선택동기가 성향에 미치는 영향

전공선택동기의 2가지 구성요인인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표 Ⅳ-1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회귀모형은 유의한 의미의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6.908, p<0.001),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를 약 4.9%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dj R-spuare =0.049).

회귀계수의 분석 결과, 내재적 동기는 성향에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 p<0.05). 즉 내재적 동기가 높아질수록 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외재적 동기는 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3> 전공선택동기가 성향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성향	(상수)	2.620	.281		9.309	.000	
	내재적동기	-.197	.057	-.227	-3.476	.001	1.035
	외재적동기	.131	.068	.126	1.930	.055	1.035
F : 6.908, R-spuare : 0.057, adj R-spuare : 0.049, Durbin-Watson : 1.768							

내재적 동기가 성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선택이나 진로결정 및 자신이 선택한 진로의 미래 전망을 생각할 때 확신을 하지 못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외재적 동기는 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범계열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을 할 때 개인의 적성, 흥미, 의견을 덜 고려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적성, 흥미 등이 자신이 선택한 진로와 일치한다고 해도 진로결정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분석된다.

마. 전공선택동기가 타협성에 미치는 영향

전공선택동기의 2가지 구성요인인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타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표 Ⅳ-1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회귀모형은 유의한 의미의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0.162$, $p<0.001$),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를 약 7.3%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dj R-spuare =0.073).

회귀계수의 분석 결과, 내재적 동기는 타협성에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 $p<0.001$). 즉 내재적 동기가 높아질수록 타협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외재적 동기는 타협성에 유의미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4> 전공선택동기가 타협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타협성	(상수)	3.502	.173		20.256	.000	
	내재적동기	-.157	.035	-.290	-4.502	.000	1.035
	외재적동기	.025	.042	.038	.594	.553	1.035

F : 10.162, R-spuare : 0.082, adj R-spuare : 0.073,
Durbin-Watson : 1.918

내재적 동기가 타협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동기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자신의 내재적 욕구를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다고 분석된다.

이는 사범계열 대학생들이 진로선택시 직업의 전망, 보수, 사회적인 인식 같은 현실적인 요소보다는 자신의 적성, 흥미 의견, 욕구를 고려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외재적 동기는 타협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논문은 국립대 사범계열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동기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성별과 학년은 전공선택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전공선택동기는 계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한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는 인문계열 사범대학생들이 수산계열과 공학계열 사범대학생들보다 높았고, 외재적 동기는 수산계열과 공학계열 사범대학생이 인문계열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문계열 사범대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적성이나 흥미 등의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공학계열과 수산계열 사범대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전공의 취업전망, 인기학과, 부모님 혹은 주변의 권유, 사회에서의 인정, 보수 등의 사회적 요인이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성별과 학년은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전체 진로성숙도에서도 전공계열의 차이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진로성숙도의 몇몇 하위요인에서는 계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한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에 따르면 참

여도에서는 공학계열과 수산계열 사범대학생들이 인문계열 사범대학생보다 높다고 나타났다. 독립성에서는 인문계열 사범대학생들이 공학계열과 수산계열 사범대학생들보다 높다고 나타났다. 성향에서는 공학계열과 수산계열 사범대학생들이 인문계열 사범대학생들보다 높거나 수산계열 사범대학생들이 공학계열과 인문계열 사범대학생들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계열의 특성과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고려한 진로준비프로그램 등 진로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범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내재적 동기는 결정성, 참여도, 성향, 타협성에 부(-)의 영향, 독립성에는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외재적 동기는 참여도에 정(+)의 영향, 독립성에는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결정성과 성향, 타협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내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업의 전망, 보수, 사회적인 인식과 같은 현실적인 요소보다는 자신의 적성, 흥미, 의견, 욕구를 고려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가 결정성, 참여도, 성향, 타협성에 부(-)의 영향을, 독립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내재적 동기가 결정성, 참여도, 성향, 타협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이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할 때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는 것이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진로선택 과정에서 조금 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그리고 내재적 동기가 독립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에 관한 부분을 결정할 때 주변의 권유보다는 주체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외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진로 선택과 준비 과정에서 개인의 적성, 흥미와 같은 개인적이고 내적인 요인보다는 인기 있는 전공, 취업 전망, 급여, 주변 권유, 사회적 인식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을 고려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재적 동기는 참여도에 정(+)의 영향, 독립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결정성, 성향, 타협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외재적 동기가 참여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인기 있는 전공, 취업전망, 급여, 주변권유,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외재적 동기가 독립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때 주변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자신의 적성, 흥미 등을 더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이는 사범대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고 확신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외재적 동기와 같은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하지만, 개인의 적성, 흥미, 의견 등과 같은 내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한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사범계열 대학생들의 내재적·외재적동기를 고려하여 진로지도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범계열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와 진로성숙도는 성별과 학년에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계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성을 제외하고는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지만, 내재적 동기가 외재적 동기보다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사범계열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 진로준비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계열의 특성, 전공선택동기 및 진로성숙도, 취업 전망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범계열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자신의 의견을 고려하여 주체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에 대한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향후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다양한 사범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국의 사범계열 대학생들로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표집대상을 더욱더 다양한 계열의 사범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 척도 중에서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에 초점을 둔 설문을 구성하여 연구했지만, 향후 결정성, 독립성, 확신성, 목적성, 준비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을 구성하여 연구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공선택동기와 진로성숙도라는 두 요인만을 가지고 사범계열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연구했지만, 향후에는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진로탐색효능감, 진로적응성 등 사범계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및 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교육부 (2017), 고등교육법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2017년 교육기본통계 분석 자료집

김선경 (2017), 청소년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청소년활동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수영 (2007), 사회복지학 전공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와 진로에 관한 연구: 전북지역 3개 대학 사회복지학 전공자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영봉, 최철용, 강병재, 박혜경, 김혜진 (2007), 교육심리학, 서울: 서현사

김윤희 (2016), 진로교육 활동이 일반고 재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충기 (1983), 진로교육의 본질, 서울: 평민사

김현아 (2016),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옥 (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노상학 (1998), 사회복지 전공선택동기요인에 관한 연구, 우원사상논총, 6, 69-100

류지영 (1992), 학과조직의 구성변인과 학과풍토와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병우 (2013), 대학생의 특성이 전공선택동기와 직업선택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Vol.3 No.2, 65-81

서우석 (1994), 고등학교학생의 진로의사결정과 관련 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윤정 (2013),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교수-대학생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현순 (1997), 진로성숙에 관련된 변인에 관한 메타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승원 (2011), 성인영어교수자의 교수리더십·성인영어학습자의 영어자아개념·셀프리더십영어교사 효능감·교육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진 (2012),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취업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소제 (2010), 사범계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지혜 (2017), 대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전공선택동기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용소현 (2003), 청소년의 직업선호 경향 이해와 진로지도에 대한 방향성: 청소년 직업흥미 검사를 바탕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준상, 서우석 (2013), 진로성숙과 심리적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26(3), 165-183

윤창환 (2016), 사범계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성숙과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종합교원양성대학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기학, 한종철 (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위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8, 219-255

이건남, 정철영 (2009), 고등학생의 대학전공선택 프로그램 모형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1), 87-110

이경희, 권준모 (1996), 대학생의 전공 선택 자율성과 대학생활,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12(1), 95-112

이명애 (2007), 학부제에서의 전공 선택 및 전공결정 과정 탐색, 교육평가 연구, 20(3), 81-101

이성진 (1984), 한국 중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식 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용남 (1999), 신교육 심리학 = Educational Psychology, 학지사

이유민 (2014),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진희 (2009),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진로성숙도 및 진로스트레스 조사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현림, 권소희 (2000), 중·고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에 영향을 주는 변인분석 상담학연구 2000, 1(1): 125-137

이현진 (2009),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언 (2006), 이공계 대학 전공적합도 진단도구 개발과 타당화, 진로교육연구, 19(3), 1-21

임용수 (1993), 전공만족도를 중심으로 본 대학생들의 진로사회화 과정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9, 107-129

원상희 (2013),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진로성숙도의 발달궤적: 자기통제의 종단적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석민, 임두순, 송병민 (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서울: 교육개발원

장인규 (1998), 중학생의 진로의식 및 진로 성숙도 조사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보연 (2010), 대학생의 전공 선택 동기가 직업선택요인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종화 (2002), 중학생들의 진로포부수준, 의사결정유형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주원 (2014),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성숙과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6(1), 101-118

조민제 (2010), 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취업불안 및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애리 (2012), Ego identity status and confirmation bias in career information search,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상권 (2012), 경호학전공 대학생들의 가치관과 전공선택 동기 및 전공만족도의 관계, 한국체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선미 (2007), 체육계열학과 수험생들의 대학지원 배경, 진로, 선호경향을 통한 질적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개발원 (1992), 진로성숙도 검사 요강, 한국적성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 (2016), 2016 학과 분류 자료집

통계청 (2015), 2014년 사회조사보고서

HRD 용어사전(2010)

Crites. J. O. (1978),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Monterey, California: CTB/ McGraw-Hill

Deci. E. L. (1980), *The psychology of self-determination*, Toronto: LexingtonBook

Eggen. P. D. & Kauchak, D. (1992), *Educational psychology: Classroom connections,* New York: Macmillan Publishig Company

Gage. L. & Berliner. C. (1984), *Educational psychology*(3rd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Ginzberg. E (1951), Conservation of Human Resources, Science; November 1951, Vol. 114 Issue : 2969, 3

Girbbons. W D. & Lohnes. P R. (1966), A five-year study of student educational aspiration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14, 66-69

Heller. T. L. (2008), Psychological predictors of career maturity in college student-athlet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Hoyt. K. B. (1977), Community resources for career education, Occupational Outlook Quarterly, 21(2): 10-21

Kruglanski. A. W. (1975), The endogenous-exogenous partition in attribution theory, *Psychological Review*, *82*(6), 387-406

Logue. C. T.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vocational interest themes, and college major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nnesse

Ryan. R. M. & Deci. E. L.(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Steers. R. M. & Porter. L. W. (1991), *Motivation and work behavior*, New York: McGraw-Hill

Super. D. E. (1951),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Young. P. T. (1948), Appetite, palatability and feeding habit: Crit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45*(4), 289-320

<부록>

설문지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사범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본 설문지의 질문은 정답이 없으며 질문에 대한 답은 각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대로 각 문항에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작성을 부탁드리며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문항에 체크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7년 10월

부경대학교 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

석사과정 지승연 올림

지도교수 : 박 종 운 교수님

연구자 연락처 : djssl94@naver.com

Ⅰ. 다음은 개인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는 몇 학년입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3. 귀하의 전공계열은 무엇입니까?
   ① 인문사회계열 ② 자연과학계열 ③ 상업계열
   ④ 공학계열 ⑤ 수산계열 ⑥ 농업계열 ⑦ 예체능계열
4. 귀하는 교생실습을 다녀왔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뒷 면에 계속됩니다.

5. 귀하는 교육봉사활동(멘토링)을 해보았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귀하가 미래에 생각하고 있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교사 ② 교육관련 회사원 ③ 교육관련 기관 연구원

④ 전공과 무관한 직업 ⑤ 기타( )

7. 임용고시를 응시하고 싶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Ⅱ. 다음은 현재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십시오.

번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관심이 있는 분야의 전공을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흥미를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전공과 관련된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전공을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가치관과 잘 맞아서 전공을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이 분야의 일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전공을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장래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공을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전공을 통해 졸업 후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서 전공을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졸업 후 취업이 유리할 것 같아서 전공을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전공의 장래 전망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취업 후 급여를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이 전공을 공부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공을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학과(전공)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좋아서 전공을 선택했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진로성숙에 관한 문항입니다.

번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때때로 '장래에 어떤 일을 할까?'하는 생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에 대해 이야기 해주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3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 결정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양한 일을 해 보고 나서 마음에 드는 직업을 고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한 생각을 자주 바꾼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충분한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놀기보다 일하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장래의 내 직업에서 내가 되고자 하는 인물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직업에 대한 내 계획이 현실적인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여러 방면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한 직업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1	어떤 직업에서든 성공하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수입만 많다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다.	①	②	③	④	⑤
13	미래란 어차피 불확실한 것이므로 직업을 미리 결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알맞은 직업은 단 하나뿐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직업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 걱정하지 않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6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우연에 의해서 좌우된다.	①	②	③	④	⑤
17	직장생활에서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보다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직업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9	앞으로 내 자신이 유명해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어떤 직종에 취업하든 마찬가지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스스로 직업을 결정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할지는 부모님이 가장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부모님이 추천해 주시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직업선택에 있어서 부모의 충고를 따른다면 크게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6	직업 선택은 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8	누군가 나에게 어떤 직종에 취직해야 할지를 말해 준다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29	부모님은 나에게 보다 적합한 직업을 선택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취업요건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35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7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에게 큰 호감을 주는 직업을 발견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39	내 자신과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직업선택을 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0	내 적성이 어떤 직업에 맞는지 생각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1	직업을 선택할 때, 다양한 직업들에 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2	때때로 직업 선택 후 나에게 요구되는 수준과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3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었으면...'하고 바라는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4	때로는 직업을 바꾸어야 할 때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45	나는 앞으로의 직장생활에서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46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①	②	③	④	⑤
47	나는 직업에 대한 목표가 높기 때문에 내 자신이 결코 그 일을 해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